

일자리

I. 일자리 정책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나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 조정(2013.7.2.)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3년 간)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함. 이에 따라 만 30세부터 만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의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으로 2012년말 기준 401개소(정부 공공기관 276개소, 지방공기업 125개소)이고,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총 298,351명으로 이 중 3%는 8,951명임.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청년의 나이)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제2조에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2013.7.9.)

-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함.
- 그동안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음.
 -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 및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정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최근 5년간(2007~2011) 총 취업자 증가분 81만 명의 70.4%인 57.1만 명 점유
-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함.
 -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 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한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도 제시

□ 고용노동부, ‘2013 청년희망 채용박람회 개최’(2013.7.15.)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화) 고졸 이상 청년층이 함께하는 ‘2013 청년희망 채용박람회’를 개최
 - 채용관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 등 11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층 2,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
 -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칠성 등 롯데그룹 8개사가 참여하여 판매 관리직 및 인턴사원 등 200여 명을 채용하고, 이마트에서는 판매직 200여 명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주방조리원 등 1,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
 - (주)한화갤러리아에서는 한부모 가장 여성 60여 명을 뽑고, (주)유창하이텍, (주)비클시스템 등 강소기업에서도 연구 및 관리직원 등을 채용함.

-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박람회와 달리 사전 매칭, 면접, 사후 관리 등 3단계의 과정으로 운영

□ 「K-MOVE 스쿨」 운영기관 모집(2013.7.18.)

- 고용노동부는 7.18(목)부터 8.1(목)까지 「K-MOVE 스쿨」 운영기관을 모집함.
- 「K-MOVE 스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6~12개월 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임.
 - 우리나라의 강점인 IT·디자인 등 창조경제 분야는 동남아·중동 등 신흥 시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임.
- 2013년에는 5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유·무료 직업 소개기관, 대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이 신청 가능함.

□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후속조치 본격이행(2013.7.23.)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함.
-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해외시장의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국내 창업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동포, 유학생 등 해외거주 국민 740만여 명과 개발도상국의 해외봉사단·해외인턴 등 해외파견자 5천여 명(연간)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을 통해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도모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민간의 글로벌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은 국내 엑셀러레이터 3개 기관을 선발하여(각 5억 원 지원) 해외

유수의 엑셀러레이터와 창업기업(10개 팀)의 공동발굴 및 해외현지 마케팅을 실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미래의 글로벌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 이 사업은 각급 대학이나 창업보육센터 중 2개 기관을 선발하여(각 2.5억 원 지원) 해외 창업제도,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투자유치 전략 등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고용노동부,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보고(2013.7.24.)

-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도입·검토가 필요하거나 활성화가 가능한 신직업 100여 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유망 직업을 선별·육성 할 계획임.
- 신직업 발굴·육성은 “① 외국직업 비교·분석 → ② 신직업 발굴·육성방안 마련 →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 등 3단계로 진행됨.
 - 우리나라 직업사전(2011)에 등재된 직업의 수는 11,655개로 미국 30,654개(2010), 일본 17,209개(2011)에 비해 적은 수준이므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국의 직업이 많이 존재함.
- 고용노동부는 선별된 100여 개 직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직업 발굴·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인 “(가칭)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임.
 - 1차 선별된 외국직업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도입을 추진할 유망 직업을 발굴·확정할 계획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3.7.30.)

- 노인일 자리를 매년 5만 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확대하기로 함.
 - 2017년까지 참여보수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30~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할 예정
 - 학교, 경로당,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 자리를 확대하여 경력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함.
- 노인일 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등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노인 친화적이고 건실한 사회적 기업에서도 노인일 자리 사업 실시
 - 일 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2013년 1,512명)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에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
- 노인일 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 완화
 - 지역 및 일 자리 유형별로 노인일 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노인일 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
 - 구인·구직 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 활성화
-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일 자리 창출
 - 시니어 인턴십: 노인적합 직무개발 및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 취업기회 제고
 -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여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노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휴게실, 작업공간 등) 조성 노력 강화
 - 시니어 직능클럽: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 「2013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시범 발표**
(2013.7.30.)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철강의 7개 수출 주력업종(2012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53.4% 차지)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을 시범 발표
 - 기계(1.7→5.6%)는 크게 증가, 디스플레이(4.2→5.6%), 반도체(-0.4→0.4%), 전자(2.6→3.6%), 철강(-0.7→0.4%)은 증가, 섬유는 상반기 수준(0.4%) 유지, 자동차는 감소(1.2→0.8%) 할 것으로 전망됨.
- 「2013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은 전국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취업지원과 인력양성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안전행정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2013.7.31.)

- 이북5도 위원회와 함께하는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이북5도 위원회와 함께하는재단은 7월 30일 이북5도 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우선 8월 1일부터 3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함.
 - 함께하는재단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어의 순이익이 10%를 초과하여 달성될 경우 이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추가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굿윌스토어는 1902년 Edger J, Helms 박사가 보스턴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나누고자 기증물품을 수선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으로부터 시작됨.
 - 현재 굿윌인터내셔널(GII, 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Inc)은 ‘사

람, 이익, 환경'을 생각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모델로서 미국, 캐나다 등 13개 나라에서 2,400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여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2013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2013.7.1.)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 을 맞아 이날부터 3일(수)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3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함.
-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따뜻한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이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200여 개의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함.
 - 이번 박람회는 지난 해에 비해 참여기업 수가 2배 이상(2012년 80여 개) 늘어나 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42개, 마을기업 23개, 소셜벤처 4개, 청년창업팀 14개 등이 참여
 - 박람회장도 사회적기업관과 별도로 소셜벤처관을 꾸며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소셜벤처와 창업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공한 CEO와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

□ 고용노동부,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구축(2013.7.10.)

- 당초(2009) 「일모아 시스템」은 국민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선 담당자에게는 중복 참여 방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족한 예산으로 중복참여자 검색 등 초보적 기능만 탑재한 채 운영을 시작했던 까닭에 정보 검색에 불편함이 많았고, 참여자 선발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행정 정보 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없어 국민 및 일선 담당자 모두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었음.

-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선
 - 국민들이 지역, 소득수준, 실업 및 장애 여부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로 최적화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제공
 - 중복 의심자 검색에 국한된 기능을 확대하여 참여자 선발, 관리, 급여 지급 까지 처리 가능, 업무 부담 대폭 경감
 -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리 사업의 공고 내용은 워크넷 구인 등록으로 연결되어 대국민 일자리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구직자가 워크넷에 등록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 자동 접수되도록 연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3.7.24.)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계속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 행보의 일환임.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에 힘을 더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아이친환경, 현대자동차, 시지온, 빅워크 등 4개사가 우수사례를 발표함.
 - 사회적기업의 성공스토리와 젊은 소셜벤처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정부 관련부처 등 관계자들은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소셜벤처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이 훌륭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정부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창업 생태계 조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고용노동부,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2013.7.29.)

-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는 이렇다 할 은퇴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취업 등 성공적인 인생 재도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됨.
 - 베이비붐 세대가 스스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진단 및 생애 재설계, 기본역량 교육, 취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됨.
- 경력진단 및 생애 재설계 서비스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개인의 적성 및 평생 쌓은 직업경험을 분석하여 경력 경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함.
 - 기본 역량 교육은 새로운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역량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IT, 인문사회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이를 토대로 채용이 예정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교육훈련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2013.8.1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전략 직무로 ‘동료지원가’ 직무를 개발하고,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
 - 이번 시범사업은 일반 직업영역에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전략직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임.
- ‘동료지원가’란, 정신장애인들 중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잘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복을 돕는 사람을 의미함.
 - 동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 활동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생활 전반에 도움을 제공
 - 공단은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의료원 등

총 6개 기관에 채용(예정)인원을 확보

□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실적 발표(2013.8.16.)

-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에 일자리 및 취업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2008년 말부터 시행 중에 있음.
- 2013년도에는 전체 공공기관이 1만 2천 8백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채용계획 인원 대비 75%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였음.
- 청년인턴이 실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 채용 시 20%를 청년인턴 경험자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105%) 및 준정부기관(130%)은 연간계획을 초과 달성한 반면, 기타 공공기관(61%)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분야별 채용규모는 에너지(3,702명), 고용복지(1,469명), 채용계획 대비 채용율은 연구개발(159.5%), 건설(148.3%), 교육(1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2013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인원대비 인턴경험자 비율

(단위: 명, %)

	정규직 신규채용(A)	인턴경험자(B)	비율(B/A)
합계(295)	8,446	1,398	16.6
공기업(30)	1,419	798	56.2
준정부기관(87)	1,927	440	22.8
기타공공기관(178)	5,100	160	3.1

- 인턴경험자의 정규직 채용은 권장비율(20%)보다 낮은 16.6%(1,4천명)였으나, 청년인턴이 하반기에 많이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
- 유형별로 공기업(56.2%)의 경우 청년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적극 채용, 준정부기관(22.8%)은 권장비율을 초과달성, 기타 공공기관(3.1%)은 권

장비율에 매우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노사발전재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2013.8.22.)**

- 노사발전재단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일제당, IBK 기업은행 등 269개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신규 창출(2,118명)을 지원함.
 - 이번 지원은 지난 2010년 사업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제조·금융·서비스업 및 중소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을 포함한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간제 적합 직종 개발, 직무 재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공공기관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적합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할 계획

II. 일자리 통계

◆ **2013년 7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7월 원자료)**

□ **2013년 7월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3.1%로 고용률은 0.1%p 상승,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2013년 7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2%p만큼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63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만 명 증가
- 2013년 7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함.
 - 취업자는 2,54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7천 명 증가

-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실업자는 8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 증가

표 2.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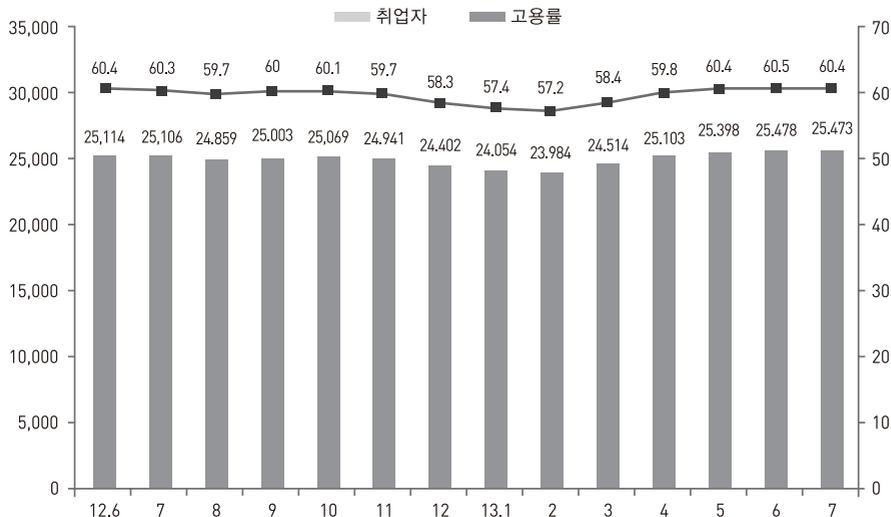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1,629	1.3	42,098	1.3	42,145	516	1.2
경제활동인구	25,901	1.7	26,291	1.4	26,301	400	1.5
참가율	62.2		62.5		62.4	0.2p	
· 취업자 고용률	25,106	1.9	25,478	1.4	25,473	367	1.5
	60.3		60.5		60.4	0.1p	
· 실업자 실업률	795	-5.0	813	-1.0	828	33	4.1
	3.1		3.1		3.1	0.0p	
비경제활동인구	15,727	0.7	15,807	1.2	15,844	116	0.7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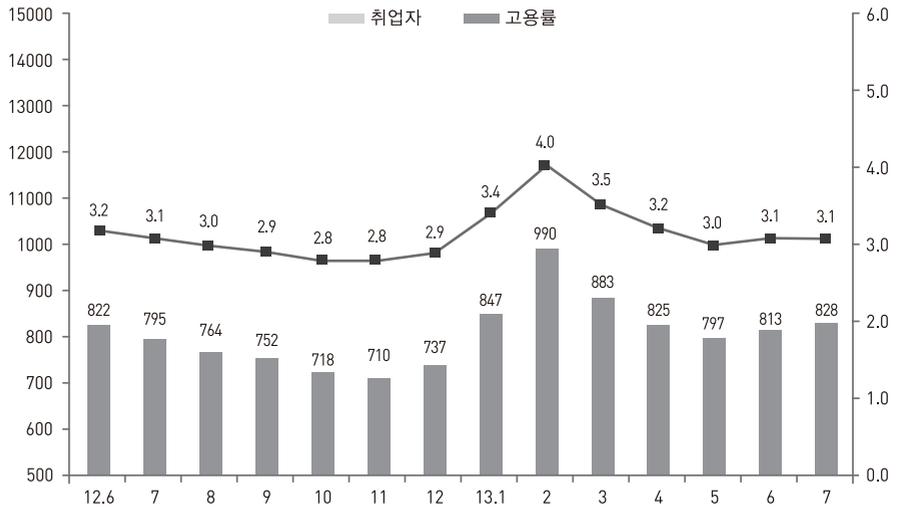
그림 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

- 성별 고용률은 남자는 71.5%, 여자는 49.9%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0.1%p하락, 여자는 0.4%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7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5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74만 명으로 20만 1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만 1.3%p 감소하였고, 40대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0.2%p, 1.3%p, 1.2%p 증가
 - 취업자는 청년층(15~29세) 10만 1천 명, 30대 4만 9천 명 감소한 반면, 40대 3만 1천 명, 50대 28만 4천 명, 60대 이상 20만 2천 명 증가

표 3.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25,106	60.3	25,478	60.5	25,473	60.4	367	0.1	
성별	남자	14,568	71.6	14,737	71.6	14,733	71.5	165	-0.1
	여자	10,539	49.5	10,741	49.9	10,740	49.9	201	0.4
연령	15~29세	3,998	42.1	3,822	40.0	3,897	40.8	-101	-1.3
	· 15~19세	282	8.5	203	6.2	260	8.0	-22	-0.5
	· 20~29세	3,717	60.0	3,619	57.6	3,637	57.8	-80	-2.2
	30~39세	5,785	73.2	5,761	73.4	5,736	73.2	-49	0.0
	40~49세	6,644	78.6	6,697	79.0	6,675	78.8	31	0.2
	50~59세	5,392	72.5	5,701	74.4	5,676	73.8	284	1.3
	60세 이상	3,288	39.4	3,497	40.9	3,490	40.6	202	1.2
학력	중졸 이하	5,038	41.1	4,922	41.1	4,828	40.4	-210	-0.7
	고졸	9,844	62.1	9,902	61.6	9,954	61.8	110	-0.3
	전문대졸	3,344	75.2	3,469	75.2	3,462	75.5	118	0.3
	대졸 이상	6,879	76.0	7,186	76.2	7,230	76.2	351	0.2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그 밖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1,84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706만 1천 명으로 1.9% 감소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 1.9%, 3.6%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1.9%)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1.7%) 감소

표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25,106	100.0	25,478	100.0	25,474	100.0	368	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911	71.3	18,429	72.3	18,413	72.3	502	2.8
	· 상용근로자	11,153	44.4	11,750	46.1	11,814	46.4	661	5.9
	· 임시근로자	5,081	20.2	4,980	19.5	4,984	19.6	-97	-1.9
	· 일용근로자	1,676	6.7	1,699	6.7	1,615	6.3	-61	-3.6
	비임금근로자	7,196	28.7	7,049	27.7	7,061	27.7	-135	-1.9
	· 자영업자	5,863	23.4	5,733	22.5	5,750	22.6	-113	-1.9
	· 무급가족종사자	1,333	5.3	1,316	5.2	1,311	5.1	-22	-1.7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3,564	14.2	3,343	13.1	3,625	14.2	61	1.7
	36시간 이상	21,134	84.2	21,833	85.7	21,451	84.2	317	1.5
	일시휴직	409	1.6	302	1.2	397	1.6	-12	-2.9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

-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9만 7천 명, 고용률 40.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10만 1천 명, 고용률은 1.3%p 감소
- 연령별 고용률 증가의 효과는 15~19세가 0.5%p 감소로 가장 낮은 반면, 20~24세 2.3%p, 25~29세는 1.1%p 감소
 -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증가한 반면, 15~19세는 2만 1천 명, 25~29세는 9만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 남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2만 4천 명, 고용률은 1.0%p 감소하였고, 여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7만 7천 명, 고용률은 1.5%p 감소

-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가 9만 4천 명, 고용률은 3.1%p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는 취업자 수가 1만 3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0.5%p 감소하였음. 전문대졸의 경우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0.5%p 하락함.

표 5.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3,998	42.1	3,822	40.0	3,897	40.8	-101	-1.3	
연령별	15~19세	281	8.5	203	6.2	260	8.0	-21	-0.5
	20~24세	1,326	47.2	1,317	44.4	1,336	44.9	10	-2.3
	25~29세	2,391	70.5	2,302	69.3	2,301	69.4	-90	-1.1
성별	남자	1,885	40.1	1,821	38.3	1,861	39.1	-24	-1.0
	여자	2,113	44.0	2,001	41.7	2,036	42.5	-77	-1.5
학력	중졸 이하	106	4.2	99	3.9	93	3.7	-13	-0.5
	고졸	1,688	42.2	1,482	36.8	1,594	39.1	-94	-3.1
	전문대졸	1,057	78.1	1,042	77.5	1,012	77.6	-45	-0.5
	대졸 이상	1,148	72.0	1,199	72.1	1,197	72.0	49	0.0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7만 4천 명(2.0%)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2만 9천 명(9.7%) 감소
 -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8천 명(7.1%) 감소하였고, 자영업자는 3만 6천 명(17.4%) 감소

표 6.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3,998	100.0	3,822	100.0	3,897	100.0	-101	-2.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699	92.5	3,565	93.3	3,625	93.0	-74	-2.0
	-상용근로자	2,111	52.8	2,142	56.0	2,134	54.8	23	1.1
	-임시근로자	1,233	30.8	1,142	29.9	1,145	29.4	-88	-7.1
	-일용근로자	354	8.9	282	7.4	345	8.9	-9	-2.5
	비임금근로자	300	7.5	257	6.7	271	7.0	-29	-9.7
	-자영업자	207	5.2	168	4.4	171	4.4	-36	-17.4
	-무급가족종사자	93	2.3	89	2.3	100	2.6	7	7.5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645	16.1	569	14.9	623	16.0	-22	-3.4
	36시간 이상	3,295	82.4	3,209	84.0	3,218	82.6	-77	-2.3
	일시휴직	59	1.5	44	1.2	56	1.4	-3	-5.1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5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 6천 명, 고용률 1.8%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 2.0%p, 1.7%p,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6%p로 가장 크게 증가

표 7.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전체	5,404	51.0	5,806	53.1	5,800	52.8	396	1.8	
성별	남자	3,168	63.9	3,371	66.0	3,387	65.9	219	2.0
	여자	2,236	39.6	2,435	41.8	2,413	41.3	177	1.7
학력	중졸 이하	3,244	48.8	3,368	50.7	3,315	49.9	71	1.1
	고졸	1,542	54.3	1,718	56.7	1,728	56.5	186	2.2
	전문대졸	101	60.7	137	62.3	145	63.9	44	3.2
	대졸 이상	516	54.3	583	56.4	611	57.9	95	3.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 12.0%p 증가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6%p, 12.9%p, 8.7%p 증가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 3.2%p, 0.6%p 증가

표 8.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04	100.0	5,806	100.0	5,800	100.0	396	7.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702	50.0	3,063	52.8	3,027	52.2	325	12.0
	-상용근로자	1,147	21.2	1,266	21.8	1,292	22.3	145	12.6
	-임시근로자	1,073	19.9	1,190	20.5	1,211	20.9	138	12.9
	-일용근로자	482	8.9	607	10.5	524	9.0	42	8.7
	비임금근로자	2,702	50.0	2,743	47.2	2,774	47.8	72	2.7
	-자영업자	2,162	40.0	2,201	37.9	2,231	38.5	69	3.2
	-무급가족종사자	540	10.0	542	9.3	543	9.4	3	0.6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1,263	23.4	1,260	21.7	1,363	23.5	100	7.9
	36시간 이상	4,047	74.9	4,485	77.2	4,345	74.9	298	7.4
	일시휴직	94	1.7	61	1.1	93	1.6	-1	-1.1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증가

- 성별 실업자 중 남자는 5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8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9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
 - 실업률은 남자 3.5%, 여자는 2.7%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 실업률 0.2%p 상승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50대와 60개 이상에서 감소
 - 실업률 또한 청년층(15~29세)와 30대,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감소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 감소한 반면, 고졸 1만 9천 명, 전문대졸 2만 1천 명, 대졸 이상에서 9천 명 증가함.
 -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한 반면, 고졸 0.2%p, 전문대졸 0.5%p 증가

표 9.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2012.7		2013.6		2013.7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 체	795	3.1	813	3.1	828	3.1	33	0.0	4.2	
성별	남자	501	3.3	498	3.3	529	3.5	28	0.2	5.6
	여자	294	2.7	315	2.8	299	2.7	5	0.0	1.7
연령	15~29세	314	7.3	327	7.9	352	8.3	38	1.0	12.1
	30~39세	173	2.9	176	3.0	179	3.0	6	0.1	3.5
	40~49세	122	1.8	146	2.1	143	2.1	21	0.3	17.2
	50~59세	118	2.1	99	1.7	110	1.9	-8	-0.2	-6.8
	60세 이상	68	2.0	66	1.9	44	1.2	-24	-0.8	-35.3
학력	중졸 이하	106	2.1	103	2.0	89	1.8	-17	-0.3	-16.0
	고졸	373	3.6	354	3.5	392	3.8	19	0.2	5.1
	전문대졸	111	3.2	148	4.1	132	3.7	21	0.5	18.9
	대졸 이상	205	2.9	208	2.8	214	2.9	9	0.0	4.4

자료: 통계청(2013. 8.), 『2013년 7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5만 2천 명, 실업률 8.3%(전년 동월 대비 1.0%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10.3%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증가, 여자는 6.4%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학력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2.1%p, 고졸 1.7%p, 전문대졸 1.7%p 증가, 대졸 이상 0.8%p 감소

표 10.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실업자	실업률		
전체	314	7.3	327	7.9	352	8.3	38	1.0	12.1	
성별	남자	169	8.2	189	9.4	213	10.3	44	2.1	26.0
	여자	145	6.4	138	6.5	139	6.4	-6	0.0	-4.1
학력	중졸 이하	9	7.6	9	8.4	10	9.7	1	2.1	11.1
	고졸	154	8.4	146	9.0	179	10.1	25	1.7	16.2
	전문대졸	53	4.8	77	6.9	70	6.5	17	1.7	32.1
	대졸 이상	98	7.9	95	7.3	92	7.1	-6	-0.8	-6.1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8만 9천 명, 실업률 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감소

○ 남자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9%p 감소, 여자는 0.8%로 0.6%p 감소

표 11.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실업자	실업률		
전체	128	2.3	118	2.0	89	1.5	-39	-0.8	-30.5	
성별	남자	95	2.9	89	2.6	70	2.0	-25	-0.9	-26.3
	여자	32	1.4	29	1.2	19	0.8	-13	-0.6	-40.6
학력	중졸이하	68	2.1	62	1.8	42	1.3	-26	-0.8	-38.2
	고졸	45	2.9	38	2.2	32	1.8	-13	-1.1	-28.9
	전문대졸	0	0.0	2	1.4	1	0.7	1	0.7	0.0
	대졸이상	14	2.6	15	2.5	14	2.2	0	-0.4	0.0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4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7천 명 증가

- 활동상태별로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17만 5천 명), 육아(2만 4천 명), 연로(2만 2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1만 4천 명), 취업준비(3만 5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가사(8만 4천 명), 입시학원 통학(3만 7천 명), 진학준비(5천 명), 쉬었음(1만 8천 명) 등에서 감소

표 1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5,727	100.0	15,806	100.0	15,844	100.0	117	0.7
육아	1,426	9.1	1,454	9.2	1,450	9.2	24	1.7
가사	5,891	37.5	5,765	36.5	5,807	36.7	-84	-1.4
정규교육기관 통학	3,834	24.4	4,122	26.1	4,009	25.3	175	4.6
입시학원 통학	94	0.6	60	0.4	57	0.4	-37	-39.4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88	1.2	213	1.3	202	1.3	14	7.4
취업준비	347	2.2	367	2.3	382	2.4	35	10.1
진학준비	123	0.8	110	0.7	118	0.7	-5	-4.1
연로	1,793	11.4	1,792	11.3	1,815	11.5	22	1.2
쉬었음	1,468	9.3	1,369	8.7	1,450	9.2	-18	-1.2
기타	563	3.6	553	3.5	553	3.5	-10	-1.8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3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2천 명(2.4%) 증가

- 정규 교육기관 통학이 18만 1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1만 6천 명), 취업준비(2만 3천 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입시학원 통학(3만 6천 명), 가사(2만 1천 명), 진학준비(5천 명), 쉬었음(1만 6천 명), 육아(4천 명) 등에서 감소

표 13. 활동상태별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186	100.0	5,409	100.0	5,308	100.0	122	2.4
육아	234	4.5	233	4.3	230	4.3	-4	-1.7
가사	118	2.3	94	1.7	97	1.8	-21	-17.8
정규교육기관 통학	3,794	73.2	4,091	75.6	3,975	74.9	181	4.8
입시학원 통학	93	1.8	60	1.1	57	1.1	-36	-38.7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34	2.6	158	2.9	150	2.8	16	11.9
취업준비	257	5.0	265	4.9	280	5.3	23	8.9
진학준비	119	2.3	107	2.0	114	2.1	-5	-4.2
쉬었음	306	5.9	279	5.2	290	5.5	-16	-5.2
기타	132	2.5	123	2.3	115	2.2	-17	-12.9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83.4%, 여자는 83.4%가 정규 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의 경우, 남자는 취업준비(43.2%)가 여자는 육아(28.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상태(2013.7)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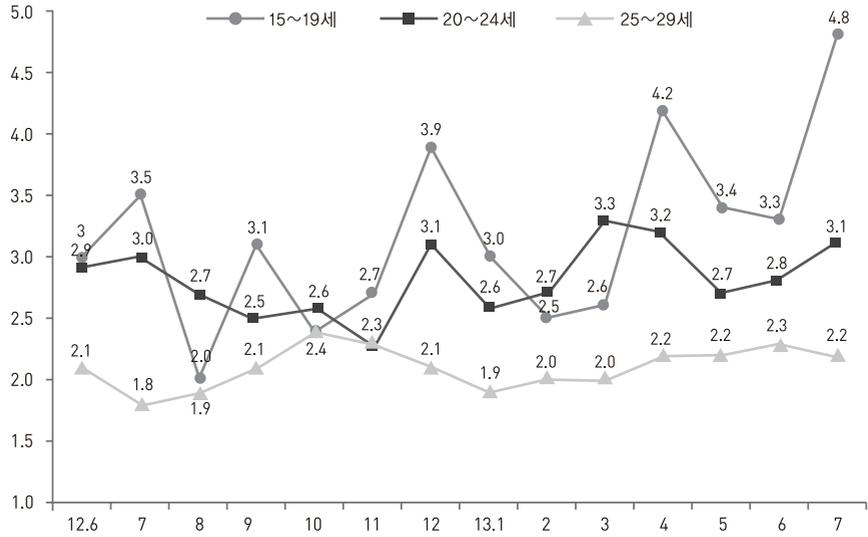
구분	남자				여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498	100.0	192	100.0	2,215	100.0	403	100.0
육아	0	0.0	0	0.0	117	5.3	113	28.0
가사	2	0.1	1	0.5	41	1.9	52	12.9
정규 교육기관 통학	2,084	83.4	24	12.5	1,848	83.4	20	5.0
입시학원 통학	28	1.1	1	0.5	24	1.1	4	1.0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45	1.8	27	14.1	36	1.6	42	10.4
취업준비	53	2.1	83	43.2	43	1.9	101	25.1
진학준비	58	2.3	9	4.7	35	1.6	10	2.5
쉬었음	152	6.1	38	19.8	50	2.3	50	12.4
기타	75	3.0	7	3.6	21	0.9	12	3.0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13년 7월 현재 10대 후반(15~19세)은 4.8%로 전년동월대비 1.3%p, 20대 초반(20~24세)은 3.1%로 2012년 6월의 3.0%보다 0.1%p, 20대 후반(25~29세)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함.

그림 3. 전체 실업을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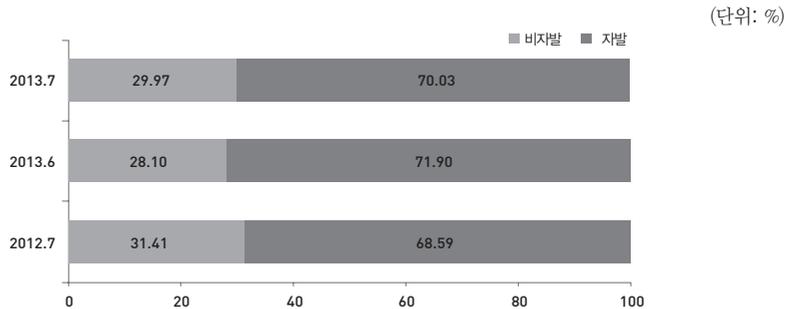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29.97%로 전년 동월 대비 1.44%p 감소

그림 4.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85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3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5천 명 감소, 여자 역시 39만 7천 명으로 3만 8천 명 감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2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57만 4천 명으로 2만 3천 명 감소

- 고용률은 20.2%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2.3%로 전년 동월 대비 4.5%p 증가, 여자의 경우 18.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14.6%로 전년 동월 대비 22.8%p 감소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 역시 29.8%로 0.6%p 감소

표 15.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932	18.1	711	13.9	859	20.2	-73	2.1	
성별	남자	497	17.8	397	14.2	462	22.3	-35	4.5
	여자	435	18.5	314	13.4	397	18.3	-38	-0.2
학력	전문대	247	37.4	185	28.9	207	14.6	-40	-22.8
	대학교	597	30.4	451	22.4	574	29.8	-23	-0.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증가함.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8.4%로 전년 동월 대비 1.6%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18.7%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여자는 18.1%로 1.9%p 감소
 -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5%로 전년 동월 대비 4.4%p,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은 30.5%로 3.0%p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2.7%로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 여자는 8.1%로 0.5%p 증가
 - 학력별로는 현재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증가, 현재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5%로 1.1%p 증가

표 16.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체	20	9.5	14	8.0	18.4	10.5	-1.6	1.0	
성별	남자	20	11.1	14	9.6	18.7	12.7	-1.3	1.6
	여자	20	7.6	13	6.0	18.1	8.1	-1.9	0.5
학력	전문대	42	10.7	29	7.0	37.5	13.0	-4.4	2.3
	대학교	34	9.4	22	9.2	30.5	10.5	-3.0	1.1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3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 감소하여 4.8%p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인구는 6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천 명 증가
 - ‘정규 교육기관 통학’하는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은 25만 3천 명으로 전체의 38.4%를 구성하고 전년 동월 대비 1.6%p 감소

표 17. 재학 중 취업 청년층(15~29세)의 주요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구 분	2012.7		2013.6		2013.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643	100.0	461	100.0	658	100.0	15	2.3
일하였음	378	58.8	175	38.0	360	54.7	-18	-4.8
일시휴직	7	1.1	2	0.4	45	6.8	38	542.9
정규 교육기관 통학	257	40.0	284	61.6	253	38.4	-4	-1.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영역별 NEET족 비율 모두 감소

- 청년 NEET족 규모는 7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는 2만 7천 명 감소, 여자는 2천 명 증가
 - 연령별로는 10대(15세~19세)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3만 3천 명, 20대 후반(25세~29세)이 5만 9천 명 감소
 - 학력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5천 명, 고졸 6만 4천 명, 전문대졸 2만 2천 명, 대졸 이상 1만 1천 명 감소
- 전체 청년층 대비 NEET족 비율은 8.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 성별로는 남자가 0.7%p 감소
 - 연령별로는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1.9%p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25~29세) 1.5%p와 10대 후반(15~19세)은 0.3%p 감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0.1%p 감소하였고,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 1.8%p, 1.3%p, 1.2%p NEET족 비율 감소

표 18.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7		2013.6		2013.7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증감		
							인원수	NEET족 비율	
전체	798	8.4	743	7.8	774	8.1	-24	-0.3	
성별	남자	478	10.2	437	9.1	451	9.5	-27	-0.7
	여자	321	6.7	306	6.3	323	6.7	2	0.0
연령별	15~19세	116	3.5	97	3.0	105	3.2	-11	-0.3
	20~24세	401	14.3	356	12.0	368	12.4	-33	-1.9
	25~29세	360	10.6	291	9.0	301	9.1	-59	-1.5
학력	중졸 이하	34	1.3	26	1.1	29	1.2	-5	-0.1
	고졸	499	12.5	420	10.4	435	10.7	-64	-1.8
	전문대졸	126	9.3	101	7.5	104	8.0	-22	-1.3
	대졸 이상	217	13.6	196	11.8	206	12.4	-11	-1.2

주: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미혼 '가사'+'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일자리 동향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및 실업률 감소,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

- 청년층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12만 명 감소.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8천 명 증가
- 취업자는 382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5천 명 감소, 실업자는 30만

7천 명으로 3만 5천 명 감소함.

- 고용률은 40.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실업률은 7.4%로 0.6%p 감소

표 19.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5				2013.5							
	청년층 인구	15~ 19세	20~ 24세	25~ 29세	청년층 인구	증감	15~ 19세	증감	20~ 24세	증감	25~ 29세	증감
전체	9,512	3,303	2,790	3,419	9,550	38	3,274	-29	2,945	155	3,332	-87
경제활동인구	4,253	245	1,418	2,590	4,133	-120	222	-23	1,423	5	2,488	-102
취업자	3,911	230	1,278	2,403	3,826	-85	199	-31	1,307	29	2,321	-82
실업자	342	15	140	187	307	-35	23	8	116	-24	168	-20
비경제활동인구	5,259	3,058	1,372	829	5,417	158	3,052	-6	1,522	150	844	15
고용률	41.1	7.0	45.8	70.3	40.1	-1.0p	6.1	-0.9p	44.4	-1.4p	69.6	-0.7p
실업률	8.0	6.0	9.9	7.2	7.4	-0.6p	10.3	4.3p	8.2	-1.7p	6.7	-0.5p

자료: 통계청,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학교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높음.

-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은 383만 5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40.2%가 직장체험을 함.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직장 체험자는 192만 5천 명으로 29.7%에 불과한 반면, 대졸 이상은 190만 9천 명으로 62.3%가 재학 혹은 휴학 중에 직장체험을 경험하였음.
- 직장체험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p, 0.3%p, 0.3%p 상승한 반면, ‘3~6개월 미만’은 0.9%p 하락
 -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에서 ‘6개월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0%, 41.9%로 가장 높음.

- 1개월 미만'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 13.9%로 나타나 대졸 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0.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유무 및 기간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청년층 인구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청년층 인구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9,508	100.0	6,457	3,051	9,549	100.0	6,484	100.0	3,064	100.0
직장체험 경험 있음	3,922	41.2	1,953	1,969	3,835	40.2	1,925	29.7	1,909	62.3
-1개월미만	433	11.0	278	155	436	11.4	267	13.9	170	8.9
-1~3개월 미만	1,025	26.1	548	476	1,014	26.4	535	27.8	480	25.1
-3~6개월 미만	932	23.8	435	497	872	22.7	412	21.4	460	24.1
-6개월 이상	1,532	39.1	692	840	1,512	39.4	712	37.0	800	41.9
직장체험 경험 없음	5,586	58.8	4,504	1,082	5,714	59.8	4,559	70.3	1,155	37.7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학교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이 대부분이고 전일제 취업, 학교의 현장실습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을 한 경우가 252만 9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65.9%를 차지하고, 전일제 취업이 78만 8천 명으로 20.5%, 학교의 현장실습이 27만 1천 명으로 7.1%를 차지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134만 1천 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취업 45만 7천 명(23.7%), 학교의 현장실습 6만 8천 명(3.5%) 순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은 시간제 취업 118만 9천 명(62.3%), 전일제 취업 33만 1천 명(17.3%), 학교의 현장실습 20만 3천 명(10.6%)순으로 나타났고,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의 학교 현장실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형태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직장체험	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직장체험	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3,922	100.0	1,953	1,969	3,835	100.0	1,925	100.0	1,909	100.0
전일제 취업	838	21.4	455	384	788	20.5	457	23.7	331	17.3
시간제 취업	2,579	65.8	1,368	1,212	2,529	65.9	1,341	69.7	1,189	62.3
학교의 현장 실습	298	7.6	81	216	271	7.1	68	3.5	203	10.6
인턴(기업 인턴 등)	129	3.3	29	100	168	4.4	37	1.9	131	6.9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47	1.2	8	39	41	1.1	8	0.4	33	1.7
기타	30	0.8	13	18	38	1.0	15	0.8	23	1.2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대졸 이상의 취업 경험 횟수가 고졸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중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1만 8천 명 (87.4%)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 경험이 있는 인구는 127만 8천 명으로 83.7%, 대졸 이상은 264만 명으로 89.3%로 나타남.
- 취업 경험이 한 번 있는 경우는 38.1%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증가함. 두 번 있는 경우는 22.9%로 0.3%p 증가, 세 번 있는 경우는 13.9%로 1.9%p 감소, 네 번 이상인 경우는 12.5%로 1.6%p 감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 경험이 한 번 있는 인구는 24.0%, 두 번은 20.4%, 세 번은 17.7%, 네 번 이상은 21.5%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는 한 번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은 24.2%, 세 번은 11.9%, 네 번 이상은 7.9%임.

표 22. 졸업·중퇴 후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졸업·중퇴 청년층 인구	4,545	100.0	1,598	2,946	4,482	100.0	1,527	100.0	2,955	100.0
취업경험 있음	4,027	88.6	1,344	2,683	3,918	87.4	1,278	83.7	2,640	89.3
-한 번	1,639	36.1	353	1,286	1,708	38.1	366	24.0	1,342	45.4
-두 번	1,029	22.6	318	711	1,026	22.9	312	20.4	714	24.2
-세 번	719	15.8	293	426	622	13.9	271	17.7	351	11.9
-네 번 이상	640	14.1	380	261	562	12.5	329	21.5	233	7.9
취업경험 없음	517	11.4	254	263	564	12.6	249	16.3	315	10.7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산업별 첫 일자리를 보면 고졸 이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대졸 이상은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3%), 도소매·음식숙박업(25.8%), 광업·제조업(16.8%)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8.7%로 가장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이 47.8%로 가장 높음.
 - 고졸 이하는 광업·제조업이 26.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이 23.8%의 비중을 보여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표 23.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졸업·중퇴후 취업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4,028	100.0	1,344	2,683	3,918	100.0	1,278	100.0	2,640	100.0
농림어업	24	0.6	19	5	35	0.9	26	2.0	9	0.3
광업·제조업	710	17.6	362	348	658	16.8	340	26.6	317	1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294	81.8	964	2,330	3,225	82.3	943	73.8	2,282	86.4
-건설업	165	5.0	53	112	145	3.7	54	4.2	91	3.4
-도소매·음식숙박업	1,049	31.8	529	520	1,010	25.8	495	38.7	515	19.5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1,630	49.5	286	1,344	1,620	41.3	304	23.8	1,316	49.8
-전기·운수 ·통신·금융	450	13.7	96	354	450	11.5	90	7.0	360	13.6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09만 8천 명으로 28.0%, 관리자·전문가는 103만 1천 명으로 26.3%, 사무종사자는 100만 7천 명으로 25.7%의 비중을 차지함.
-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p, 0.2%p, 0.3%p 상승한 반면, 관리자·전문가(0.3%p), 서비스·판매종사자(1.0%p),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0.3%p) 비중은 모두 감소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는 서비스·판매종사자(41.5%)와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0.4%)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관리자·전문가(36.0%)와 사무종사자(31.8%)의 비중이 높음.

표 24.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직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체	4,028	100.0	1,344	2,683	3,918	100.0	1,277	100.0	2,640	100.0
관리자·전문가	1,031	25.6	81	950	1,031	0.9	81	6.3	950	36.0
사무종사자	1,026	25.5	185	841	1,007	16.8	167	13.1	840	31.8
서비스·판매종사자	1,169	29.0	579	589	1,098	82.3	530	41.5	568	21.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	0.3	8	7	24	3.7	17	1.3	7	0.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492	12.2	274	218	465	25.8	261	20.4	203	7.7
단순노무 종사자	296	7.3	217	79	293	41.3	221	17.3	71	2.7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로는 임금근로가 97.4%, 전일제 근로가 85.9%,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형태가 60.5%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는 11.5%, 일시적 일자리는 12.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시간제 근로가 18.9%로 대졸 이상에 비해 1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 또한 20.7%로 대졸 이상(8.5%)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는 고졸 이하 22.6%와 대졸 이상 20.5%로 나타남.

표 25.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별 분포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4,028	1,344	2,683	3,918	100.0	1,277	100.0	2,639	100.0	
임금근로자	3,897	1,291	2,606	3,815	97.4	1,233	96.6	2,580	97.8	
계약 여부별	계약기간 정함	918	290	629	957	24.4	329	25.8	627	23.8
	1년 이하	802	267	535	829	21.2	288	22.6	540	20.5
	1년 초과	116	22	94	128	3.3	41	3.2	87	3.3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2,979	1,002	1,977	2,858	72.9	904	70.8	1,953	74.0
	계속근무 가능	2,520	757	1,763	2,369	60.5	640	50.1	1,729	65.5
	일시적 일자리	459	245	214	489	12.5	264	20.7	224	8.5
근무 형태별	전일제	3,431	1,055	2,376	3,364	85.9	992	77.7	2,372	89.9
	시간제	466	236	230	450	11.5	241	18.9	209	7.9
자영업자	79	27	52	48	1.2	16	1.3	32	1.2	
무급가족종사자	51	26	25	56	1.4	28	2.2	27	1.0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사유인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율 증가

- 이직 사유로서 근로여건 불만족을 답한 비율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44.8%로 고졸 이하 45.6%보다 0.8%p 낮음.
- 다음으로 개인·가족적 이유 18.7%, 일의 완료, 계약 기간 종료가 9.2%, 전망 부재 8.1%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일의 완료,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한 이직이 대졸 이상에서 10.5%로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3.3%p 높았으며,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이직한 비율 또한 고졸보다 4.1%p 높게 나타남.

표 26.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단위: 천 명, %)

구분	2012,5				2013,5					
	이직 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이직 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2,682	100.0	1,091	1,590	2,460	100.0	1,000	100	1,460	100.0
근로여건 불만족	1,179	44.0	468	711	1,110	45.1	456	45.6	654	44.8
개인·가족적 이유 (건강, 육아, 결혼 등)	484	18.0	237	247	461	18.7	221	22.1	239	16.4
전망이 없어서	232	8.7	96	136	200	8.1	72	7.2	118	8.1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음	237	8.8	83	154	186	7.6	51	5.1	135	9.2
임시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	231	8.6	64	167	226	9.2	72	7.2	154	10.5
직장 휴업, 폐업, 파산 등	47	1.8	24	23	54	2.2	23	2.3	32	2.2
그 외	272	10.1	119	153	222	9.0	95	9.5	127	8.7

주: 1) 이직 경험자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 포함.

2) '그 외'는 회사 내 인간관계, 창업 또는 가족사업 참여,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를 포함.

자료: 통계청(2012),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80

(작성: 김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